

기획특집

# 향토자원을 활용한 5대 신성장산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김 창 숙

## I. 서 론

제주특별자치도는 1, 3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 등의 유치를 통해 제주형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민선 5기인 2010년부터는 수출 1조원 시대를 열어 경제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신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물, 식품, 한방·바이오, 신재생에너지, 프랜차이즈 산업과 같은 향토자원 활용 5대 신성장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5대 신성장산업 육성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 II. 추진현황 및 성과

### 1) 물 산업

제주 물산업은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경쟁 우위 자원인 지하수를 핵심 원료로 하는 병입수(삼다수), 음료 등 다양한 2차 상품 및 지하수와 서비스를 결합하는 3차 상품(스파 테라피 상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주 삼다수는 1998년 출시된 이후 2000~2012년 동안 연평균 12.7%의 높은 성

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내 먹는 샘물 PET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평균 32%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삼다수 매출액은 1,450억원, 당기순이익은 403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 3년간(2010~2012년) 매출액은 연평균 10.2%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14.7% 증가하는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먹는 샘물 시장 확대를 위하여 2013년에 고급호텔, 백화점, 레스토랑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급 ‘한라수’를 출시하였고, 중국, 대만, 인니 등에 삼다수를 수출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14개국을 대상으로 23천톤의 삼다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음료생산 업체의 성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능성음료 업체의 매출액은 2010년 252억원 규모에서 2011년 299억원 규모로 업체당 매출액이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지역맥주인 제주맥주 ‘제시피’가 2013년 6월에 출시되어 본격 판매에 들어갔고, 3차 상품 개발차원에서 수치료와 휴양을 융복합화 한 메디컬리조트 조성사업이 2012년 3월에 시작되었다.

정부의 선도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부터 본격 추진된 ‘제주위터 글로벌 브랜드 기반구축 사업’은 사업비 408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및 산업생태계 지원 등 11개 세부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그 실적으로는 매출액 4,468억원, 수출 555만불, 고용 163명 및 제주 물산업 연구센터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한편, 용암해수의 산업적 활용기반인 제주용암해수산업화단지(연면적 195,000㎡)가 2012년 12월에 조성됨으로써 도외 중견기업 유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용암해수의 가공을 비롯한 창업보육과 R&D지원을 전담하는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연면적 1,997㎡)도 구축되었다. 이렇듯, 다양한 제주형 물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진행된 이후 제주지역 물산업의 특화도(LQ :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기준 입지계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체 수 측면에서는 작물재배지원서비스업 및 기타 비알코올음료제조업(생수 생산업) 특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 측면에서는 작물재배지원서비스업과 생수 생산업의 특화도가 증가하였다.

## 2) 식품산업

식품산업은 넓은 의미에서 식품가공업은 물론 원료 농림수산물의 수집, 중개업, 운수, 보관업, 식품제조기계업, 외식산업 및 식품의 도소매업을 포괄하나,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음·식료품 산업은 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 가공업과 냉동 보관업만을 가리고 있다.

제주의 식품산업은 세계적인 청정자원, 독특한 음식문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으나, 제조업 및 음식업 수준이 매우 영세한 규모이고, 외식 프랜차이즈 개발 미흡,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식재료에 대한 조리법 등의 매뉴얼화와 홍보 부족으로 대중화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식품산업 전담부서(도: 1과 3담당 11명, 행정시; 1담당 3명)를 신설했으며, 제주도 식품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확보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식품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해 제주식품산업학회를 창설하였고,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11개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식품가공연구 및 품질검사 인증센터를 건립하였다. 또한, 고부가가치 식재료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해 27개소에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식품제조업체 2개소에 HACCP 시설 구축을 지원하였다.

향토자원 활용 사업(마 클러스터, 넘치 클러스터, 흑돼지고기명품화, 3 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을 통해 126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현재 7개 사업(콩, 고구마, 당근, 땅콩, 우뭇가사리, 감귤주, 블랙푸드)에 2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식품산업의 역량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제주콩 지역전략산업 식품산업 육성사업(사업비 22억원)을 통해 농가소득 46억원, 업체 시설 10개소에 신규 일자리 80명, 관련기업 매출 142억원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FTA에 대응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기반확충을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을 현대화 하였고, 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30개소, 47억원) 지원, 공동상표 “J마크” 브랜드 명품화 추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선도산업 육성사업인 청정헬스푸드 프로젝트는 제주의 특화자원(고품질 지하수, 청정 농·수·축·임산물, 8,000여 종의 생물자원, 제주로컬푸드 및 문화 등)을 BT, NT, I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건강·웰빙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산업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기능 천연 기능성 소재 및 제품, 건강지향성 식·음료 소재 및 제품, 친환경 곡물 소재 기반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12년에는 국비 45억원을 투자하여 9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매출 70억원, 수출 1.5백만불, 고용창출 94명 등의 성과를 얻었다.

### 3) 한방·바이오산업

한방·바이오산업은 제주 특화바이오산업인 건강·뷰티생물산업에 포함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2003년부터 정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유치하여 건강·뷰티생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 산업은 젊고, 건강하고,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나타나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바이오 기술기반의 고부가가치 미래 유망산업으로 천연물 향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농·수·축산 기반의 종자산업을 합쳐 이미지화 한 것이다.

한방·바이오산업 규모는 생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관련 기업체가 2009년 330여개, 2011년 350여개로 증가하였으며, 종사자는 2009년 3,630명에서 2011년 4,285명으로, 매출액은 2009년 7,664억원에서 2011년 8,927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특히,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으로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사업(사업비 198억원)이 2011년에 유치되고, 선도산업으로 뷰티향장 프로젝트가 추진됨으로써 제주 화장품산업은 크게 성장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성과를 보면, 화장품기업체 수가 2010년 42개에서 2012년 55개로 늘어났으며, 매출액도 2010년 223억원에서 2012년 약 44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협의의 한방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한방브랜드 ‘제주본초’가 출시되어 약초활용 제품 29종이 개발 판매되고 있으며, 약초 관련 기업체 수와 매출액도 2010년에 10개, 19억원에서 2012년 17개, 5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2010년 9월에 제주테크노파크로 전환되었고, 2011년 4월에는 IT/CT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과 통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주지역산업진흥 선도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에는 900여종의 시험분석 장비와 cGMP화장품공장, GMP식품공장, HTS센터, 음료생산공장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가 구축되어 (주)스킨큐어 등 43개 기업체가 입주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기능성음료 생산시설이 2011년 제주테크노파크에 구축되어 제주 조릿대차, 바나비트워터, 허브워터, 한라산고로쇠, 녹차수 등 23개 품목을 생산하게 되었고, 식품가공센터 확장 구축으로 기업체의 이용도를 높여 매출액을 2010년 897억원에서 2012년 1,955억원으로 증대시켰다. 또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시험기관) 지정, 식품가공센터 미국 FDA 등록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향토자원 활용 상품화 개발을 통해 특허 출원 71건, 등록 67건, 기술이전 10건이 추진되었다.

#### 4) 신재생에너지(풍력산업)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종합계획인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플랜’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제주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계획인데,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 2,812만톤 감축, 양질의 일자리 4만개 창출, 생산유발효과 13조 4,9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조 8,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풍력을 첨단 녹색산업의 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까지 한림과 대정지역에 각각 150MW, 2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를 조성하여 전력공급의 25%를 대체하고, 일자리 5,200개를 창출하고자 하고 있다.

2012년 7월에는 전국 최초로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바람을 미래에너지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거점기관을 구축하였고, 세계 최초, 최대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활용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구좌읍 지역인 실증지역을 제주시내 공공건물, 상가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및 부품 소재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34개 기업을 육성하였고, 37명의 일자리와 14건의 특허 및 인증을 확보하였다. 가파도를 ‘세계 최초 탄소 없는 섬’으로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다.

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산업 육성사업으로 제주가 보유한 우수한 바람 자원과 풍력발전 단지 등을 활용한 풍력 발전단지 설계 기술개발, 발전단지 인·실증 관련 설계·측정·평가, 해양 엔지니어링, 운전 및 유지보수 분야 연구개발 등 10개 과제에 국비 5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2012년 사업 성과로는 참여기업의 매출액 22억원과 고용 66명을 달성하였다.

#### 5) 프랜차이즈산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프랜차이즈산업을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육성 품목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형 프랜차이즈 창업과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제주형 프랜차이즈 사업은 제주에서 출하한 농·수·축산물로 제조 가공하고, 도·소매업이나 요식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을 다루고 있다.

제주도는 서울 등 대도시에 제주형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주)제너시스 BBQ, (주)제주유기농, 올래씨푸드 등의 9개 가맹본부와 53개 가맹점을 모집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제주 특산물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2년 상반기에 수산물, 전통 떡, 갈옷 등의 품목으로 48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수산물, 식품, 향장품 등을 활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추가 선정하고, 품목 다변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4년까지 가맹본부 20개소와 수도권 가맹점 150개를 개점,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촉진할 계획이다.

### III. 향후 과제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국제자유도시로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 된 지역산업 발전전략 수립으로 지역경제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특히, 수출 1조원 시대를 열어 경제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신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5대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은 다각도로 추진되어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풍력 및 프랜차이즈산업은 기반구축 시기이나 물, 식품, 한방·바이오산업은 클러스터 형성·발전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5대 신성장산업이 제주 지역산업으로 정착해가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체감지수는 아직 높지 않은 것 같다. 5대 신성장산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실행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우선, 정부의 1, 2단계 지역산업 진흥사업으로 구축된 산업클러스터를 더욱 확충하고, 적극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물, 식품, 한방·바이오산업, 풍력산업 육성은 정부의 선도전략산업(풍력서비스, 차세대 식품융합, MICE) 및 특화산업(해양바이오, 건강소재, IT융합, 문화관광콘텐츠) 육성 사업들과 연계되어야 하며, 창조경제 기반의 융·복합 사업 발굴 및 유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발굴·추진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기반을 확충하고, 도외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견인할 인재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대학의 역

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인재 확보, 선도전략산업 및 특화산업의 인적자원 고도화, 산업체 현장의 생산 및 서비스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술인력 양성체계가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지원의 선진화를 위한 산학연간의 내실 있는 네트워크 구축 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유네스코 자연유산 3관왕의 타이틀을 획득하였고, 세계 7대 자연경관지로 선정되면서 그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향토자원 활용 5대 신성장산업이 하루빨리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경제기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